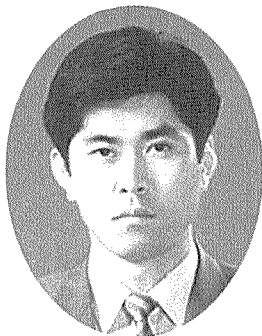


유조차

그늘진 곳에서도 소비자를 위하여



정 영 배
〈LG-Caltex 정유 운영팀 과장〉

하 교길 외판 시골 국도 가장 자리에서 커다란 트럭이 고장난 채 서 있고 운전사와 조수는 추운날씨 탓인지 모닥불까지 피어 놓고 등을 차디찬 길바닥에 대고 열심히 차를 고치고 있었다. 얼마 후 어리게 보이는 조수가 긴 쇠막대기를 트럭 코 끝에서 심장부 속으로 밀어 넣은 다음 보리 타작할 때 마다 말뚝을 피우는 동네 발동기에 시동을 걸듯이 있는 힘을 다하여 쇠막대기를 돌리고 운적석에 앉은 운전수는 『조금 더!』라고 소리치며 차를 부르려가려 보지만 끝내 차는 피식거리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두 사람도 이제 웬만히 맥이 빠진 모양으로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일 새벽까지는 도착해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리면서 온몸에 기름투성이 검정철을 한채 담배 한대를 쪼나 문다.

차가 움직이는 것을 불양으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지켜보지만 같은 과정의 연속이고 날은 어둑어둑해져 어린 아이는 괜히 맥이 빠져 발길을 집으로 돌린다.

다음 날 아침 길가에 서 있던 트럭이 궁금하여 평상시 보다 일찍 등교길을 재촉하여 학교길에 나서서 그 자리에 간 어린 아이는 차는 간데 없고 길바닥에 검게 남은 기름자국 그리고 꺼진 모닥불 재만 발견하지만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

을 트럭과 두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괜히 자신의 어깨를 으쓱해 보며 학교로 간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일이었지만, 줄곧 내 머리 속에 애처로움과 자랑스러움의 교차된 감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내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정유회사에서의 유조차 수송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필연의 전주곡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 차량제작 기술의 발달과 정비체제의 구축으로 요즘 이러한 모습을 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런 선배들의 노고가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해준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유류제품의 수송은 정유공장에서 생산되어 고객에 이르기까지 선박, 파이프라인, 유조차 및 유조차(탱크트럭)에 의해 정유공장에서 제품의 중간 기착지인 저유소로, 다시 이곳에서 주유소나 유류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조공장과 같은 고객에게 수송되는데 그 수송수단 중에서 유조차 수송은 인체의 싹뻗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탁월한 기동력과 전천후적인 기동성으로 기상악화 또는 비 정상적인 수요 폭발등으로 인한 타 수송수단의 문제 발생시에도 마지막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수송수단의 최후의 보루임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다. 이것은 제품이 고객의 수중에 들어가는 판매수송(배송) 업무의 70% 정도를 유조차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일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생산되거나 저유소까지 수송된 제품이 최종 고객에 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거리의 차량이 멈춰서고, 제조공장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아무리 값진 제품이라도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유조차 수송은 시간에 맞춰 상품을 효율적으로 공간이동 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증대 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요즘 이를 일컬어 물류라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물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인정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소위 「달구지」 등으로 매도되거나 그다지 노후화가 필요없는 단순한 기능인이 모인 곳 또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지(Terminal)쯤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나는 이제 물류인들이 과감히 그늘에서 벗어나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생산의 산물을 고객에게 연결하는 그 소임을 다 하려면 수송업무 뿐만 아니라 생산과 영업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항상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요즘 LG 정유 유조차 수송업무 종사자들의 「양질 수송 운동」, 「도약 2005동참 운동」 등은 이러한 시대

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으로 부터 일고 있는 개혁의지의 발로리는 점에서 마음 든든하다.

좋은 삶던 간에 유조차 운전기사는 제품수송의 최일선에서 매일 영업사원보다도 많이 고객과 만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고객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반증하는 일이다. 수송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고객은 이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정보와 통신산업의 발전에 발 맞추어 물류업무의 효율화와 더불어 제품과 함께 고객에게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품질(서비스)를 창출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때인 것이다. 이는 또한 시장개방과 더불어 호시탐탐 국내유류시장을 노리는 선진업체와의 목전에 다가 온 일전에 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유조차 수송업무 종사자들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밤늦게 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심화되어가는 교통체증 속에서 적기 적소에 제품을 고객에게 도착시키는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다. 옛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먹이를 모은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에게 더욱 더 영광된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오늘도 새벽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고객을 향해 출발하는 유조차 운전기사들에게 화이팅을 외쳐본다. ☺